

8/20/23

설교 제목: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3 장 1-13 절

- (엡 3: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절관주** 빌 1:7, 골 4:3, 딤후 1:8
- (엡 3: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 (엡 3: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절관주** 엡 3:4, 엡 3:9
- (엡 3: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 (엡 3: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 (엡 3: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 (엡 3: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 (엡 3: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 (엡 3: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 (엡 3: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절관주** 엡 1:3, 엡 2:6
- (엡 3: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 (엡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 (엡 3: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전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한 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전 먼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경우 일부는 속상해 하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대부분은 실망하고 낙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감옥이라니.....'라고 생각하여 실망하고 낙망하며 실족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보다 혹시라도 에베소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 실족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졌기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고 훗날의 영광을 바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은혜이며 모든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라고 말합니다.  
(엡 3: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먼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듭니다.  
(엡 3: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껏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말했다고 합니다.  
(엡 3: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엡 3: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엡 3: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밀은 하나님이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알게 된, 이전 장에서 언급했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설명합니다.

(엡 3: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 서로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일부만 보았을 뿐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웅장한 구원의 완전한 그림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 이 구원의 진리 곧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엡 3: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과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엡 3: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엡 3: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격없는 자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게 하셨고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비밀을 전하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엡 3: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엡 3: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들을 지칭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은 바로 복음을 통한 인류 구원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라는 한 새 사람이 태어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지혜가 악한 영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모두 무너뜨릴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인류 구원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호칭이 '나'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 모두 사도 바울 개인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로 연결되어 함께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엡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일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에베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엡 3: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일꾼으로 써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감사하며  
이런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날마다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서 교회 세우시고 일꾼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 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 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